

도심·야산 온통 아파트 최고 48층 '우후죽순'



공간 균형 무너진 광주

인했다. 36개 아파트 가운데 지목(地目, 토지의 사용목적)이 논(畠), 밭(田), 임야(林野) 등인 곳은 각각 9곳, 6곳, 7곳 등 22곳에 달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地)는 13곳에 불과했다. 4년여 간 아파트단지가 주로 도시 외곽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아파트 층수는 최소 9층(두암동)에서 최고 37층(유동), 39층(각화동)으로 36곳 가운데 20층 이상이 20곳에 달했다.

도시 외곽의 값싼 논이나 밭, 임야를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로 개발한 건설업체와 토지소유주는 큰 수익을 얻지만, 도시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미개발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면서 부작용은 모두 광주시와 시민의 몫이다.

<1> 어디가나 아파트만 보인다

도시 공간 구성원리 사라져
경관 부조화 등 곳곳 부작용

“어느 곳에서 봐도 저 높은 아파트는 보이는군요. 저렇게 높이 들어서도 되는 건가요. 무등산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뚝 솟은 이 아파트는 모든 운전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 대로변에 자리한데다 주변에는 3~10층 정도의 중저층 건축물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 학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끝나고 지난 2월 28~35층 아파트 11개동이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전문가들마저도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만 문제가 아니라 광주의 도심, 외곽 모두 30층에서 48층까지 초고층 아파트들이 건축심의를 통과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사중이다.

이 같은 현상이 가능한 것은 ▲전답이나 임야 등을 주거용도로 변경해주는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및 재건축의 사업성 형식을 위한 과도한 인센티브 ▲도심 상업지역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등이 아무런 여과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공간 전체를 보지 않고 개별 대상 지역의 사업성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도시·건축행정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남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6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광주시는 모두 36개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

인했다. 36개 아파트 가운데 지목(地目, 토지의 사용목적)이 논(畠), 밭(田), 임야(林野) 등인 곳은 각각 9곳, 6곳, 7곳 등 22곳에 달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地)는 13곳에 불과했다. 4년여 간 아파트단지가 주로 도시 외곽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아파트 층수는 최소 9층(두암동)에서 최고 37층(유동), 39층(각화동)으로 36곳 가운데 20층 이상이 20곳에 달했다.

도시 외곽의 값싼 논이나 밭, 임야를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로 개발한 건설업체와 토지소유주는 큰 수익을 얻지만, 도시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미개발지를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면서 부작용은 모두 광주시와 시민의 몫이다.

운하철 광주시지속가능협의회 기획부장(도시 및 지역개발학 박사)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용도지역 변경 수단이 아파트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허가도 한계를 넘어서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건축위원회가 올해 12차례 회의를 열어 심의한 건축계획 21건 가운데 아파트 관련이 15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심 상업지역에 대한 주상복합 신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집중되면서 30층 이상 아파트(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포함)가 줄지어 심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 같은 고층·초고층 아파트 일번도 개발은 토지소유주, 건설업체의 현재 수익만을 중시한 것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녹지는 물론 상업지역에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급 초과에 따른 기준 주거지의 쇠퇴, 도시 기능의 편중으로 인한 시민 불편, 경관 부조화와 도시 이미지 악영향 등이 대표적이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중앙도시계획위원)는 “도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도시 주거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며 “용도지역이 수시로 변경되고 아파트 개발만 계속되는 광주의 도시·건축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 첫 눈 찬바람이 매서웠던 5일 광주 무등산에 첫눈이 내렸다. 이른 아침부터 산을 찾은 등산객이 곳곳에 피어난 눈꽃을 감상하며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눈 내리고 칼바람 ...반짝 추위 오후부터 풀릴 듯

5일 광주·전남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오는 주말부터는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6일 중국 상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고 눈이 날리고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5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그러나 6일 오후부터는 남쪽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8일까지 최저기온 0.2도, 최고기온 9.2도인 평년기온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또 단분간 약한 기압골의 주기적인 영향으로 불규칙한 날씨가 자주 나타나고 기온의 변화 폭이 커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인 9일은 차기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 또

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0일에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긴 날씨를 보이며 주말 최고기온이 8~10도 사이를 기록해 평년 최고기온(9~10.2도)과 비슷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5일 영광 4cm, 장성 1cm, 무안 1cm, 함평 0.9cm 등의 눈이 내렸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무안공항 ‘야간운항 제한’...활성화 ‘찬물’

부산지방항공청 내년 1월부터

7명 뿐인 관제인력 부족 이유

‘잠자지 않는 공항’이라는 무안국제공항의 장점이 사라질 위기에 놓았다. 운항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항공청이 내년 1월부터 무안공항의 ‘야간운항 제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부정기 국제선 증편, 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 확정 등 모처럼 실이나는 무안공항 활성화 분위기에게 정부가 높이기 위한 것”며 “용도지역이 수시로 변경되고 아파트 개발만 계속되는 광주의 도시·건축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무는 폭증했다. 지난 2016년 2월 김포공항에서 훈련용 항공기(경비행기)가 추락하자 정부는 경비행기 훈련 장소를 지방공항으로 이전, 관제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무안공항의 경우 관제업무의 97%는 훈련용 경비행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공항 ‘24시간 운항 해지’ 결정이 알려지면서 전남도와 무안군, 지역 정치권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안공항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부산항공청 측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실제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노선 31.3%가 야간 운항이다. 무안공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무안공항을 이용한 항공기 총 316편 가운데 95편이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 사이에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시간 공항의 장점을 활용해 제주도선 이용 항공기들이 야간에 무안공항에서 일본·동남아 등 가까운 노선을 한차례 더 운항한 때문에 분석된다. 24시간 공항이 국제선 유치에 큰 도움이 된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무안국제공

항활성화추진위원회와 무안군은 이날 부산항공청을 방문해 ‘무안공항 야간운항 제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공청 측은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라면 종원되면 24시간 운항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추진위는 전했다.

박일상 추진위원장은 “느닷없이 야간 운항 제한이라는 악재가 터져 모처럼 맞은 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24시간 운항 제한이 유지되도록 지역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국기자 jw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평생대학
광신대 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무안출발 ✈ 일본,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이제 여행의 시작점은 가깝고 편리한 무안공항입니다.

•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2017. 11. 27(월) ~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10. 29(일) ~ 03. 30(금)]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선착순 특가상품]

아마가세 펜션(1박)+특급호텔(1박) 499,000원~
[실속] 북 큐 슈 호텔 599,000원~
[품격] 북 큐 슈 료칸 699,000원~
[품격] 야마구치 료칸 699,000원~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과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업체 등록번호 : 제동2003-1호
* 공동조성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경비 1인 기준,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기본기금, 공항 및 복수 이용료, 유통학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철도버스 / 철도 / 상기 오금운 흘을 및 항공으로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금 가입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무(단, 기사/기아드 풍사료, 선택관광, 약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2018. 1. 5(금) ~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품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고품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1,198,000원~
[골프] 시라하마, 와카야마 36홀 899,000원~

• 무안 ↔ 가고시마

검은 모래섬과 사쿠라지마 화산을 즐길 수 있는 일본 남쪽의 아름다운 고장!!!

2018. 1. 18(목) ~ 주 3회 출발 / 월요일(3박4일) 목, 토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6:00) → 가고시마(17:20) / 가고시마(18:00) → 무안(19:20)

[특가상품(목요일 출발)] 가고시마(이브스키, 치란, 미야자키) 669,000원~
[품격] 가고시마, 기리시마, 이브스키 898,000원~
[고품격] 가고시마, 기리시마, 이브스키 1,148,000원~
[골프] 가고시마 36홀 899,000원~

• 무안 ↔ 다낭 · 후에 · 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40) → 다낭(11:15)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50) → 무안(07:40)

* 요금은 호텔 준특급 기준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799,000원~ / 3박5일(금) 899,000원~

[노립 · 노을선]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4일(화) 1,049,000원~ / 3박5일(금) 1,149,000원~

[노립 · 노을선] 핫스프링온천+바나산국립공원+호이안